

오카번의 성 아래 도시

옛날 성 아래 도시였던 다케타 지역의 중심 시가지를 산책하면, 400 여년 더 이전에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옛 성 아래 도시의 구획은 오카번(오늘날의 다케타시)의 초대 번주인 나카가와 히데시게(中川秀成, 1574-1912)가 구성한 당초의 계획에서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 아래 도시는 언덕 정상을 고르게 하여 세운 오카 성 기슭에 개발되었습니다. 언덕 위에 처음 성이 지어진 것은 12 세기이지만, 1594 년에 나카가와 가문이 번의 정치를 시작했을 때 직접 석조로 된 성을 구축하고 성 아래 도시를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 아래 도시가 이후 다케타시의 중심 시가지가 되었습니다. 중심부에는 상가가 늘어서 있었으며, 교외의 구릉 지대에는 무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카가와 가문이 다케타 지역을 다스리던 때의 건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리에는 1800 년대에 지어진 가옥과 외벽에 석회 등을 칠한 창고와 같은 건물이 즐비해 있으며, 남쪽 끝에 무가들의 저택이 있는 거리에는 무가 계급의 훌륭한 주거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 외에 화가 다노무라 지쿠텐(田能村竹田, 1777-1835)과 작곡가 다키 렌타로(瀧廉太郎, 1879-1903)의 옛 거처 등 역사적인 건축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